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임종돌봄 실습 후 죽음 정서의 의미

조 계 화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A Meaning of Death through Emotional Expression about Death after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End-of-Life Care Practice

Jo, Kae-Hwa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death experienced by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through end-of-life care practi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twelve (six nursing and six medical) students. Conventional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is findings were analyzed in three areas: 'feeling from the word of death', 'color association of death', and 'relation between life and death'. Results were three major themes and sixteen categories from the analysis. Three major themes include 'reality of uncertain death', 'have to leave, and 'new perception about death'. Sixteen categories include 'being well', 'fear', 'unknown', 'boundless', 'being with', 'out of sight', 'new start', 'go back to', 'place going by itself', 'place to meet with', 'being transformed', 'a sense of futility', 'the same point', 'a different point', 'continuous line', and 'a crossroad'.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a number of themes that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reported about the end of life experiences that could be explored as a way of improving end of life care.

Key Words: Death, Emotion, Express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에서는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무위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표면화됨에 따라 임종과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간호교육과 의학교육에서 이론과 실습은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이며, 임종돌봄 실습교육은 이론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통합하고 적용하여 살아있는 지식체를 창조하는 것이므로 간호학

및 의학교육의 핵심적 부분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임상실습 교육과정은 실습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의 요구와 시대의 변천에 맞춰 가장 이상적인 학습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Kim et al, 1997). 그러나 임종돌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임상경험, 학생들의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사정은 아직도 제한적이다(von Gunten, 1996).

죽음의 의미는 특정 사회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 하에서 사회화를 통해 개개인이 해석하는 것이므로 오늘날 한국의 간호학, 의학 전공분야 대학생들의 죽음에 관한 정서를 파

주요어: 죽음, 정서, 표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Jo, Kae Hwa,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u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5, Fax: 82-53-621-4106, E-mail: jokw@cu.ac.kr

- 이 논문은 2010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grants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in 2010.

투고일 2010년 4월 19일 / 수정일 2010년 6월 19일 /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20일

악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구조와 문화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생들의 삶을 재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간호학 전공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로는 죽음의 의미(Kim, Jo, & Kim, 2005; Lee, Jo, Chee, & Lee, 2008)와 죽음태도(Jo & Lee, 2008; Jo, Lee, & Lee, 2005) 죽음교육 교과내용(Jo, Lee, & Lee, 2006), 죽음교과목 개발(Jo, Lee, & Lee, 2007)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는 임종돌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임상실습 현장에서 죽음을 직면한 대상자에게 간호대학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임종 돌봄을 수행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적용에 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더구나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종과 죽음에 관한 국내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국의 연구의 경우, 의학교육과정의 부조화로서 전체 교과내용 중 말기임종 돌봄의 내용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점(Rabow, Gargani, & Cooke, 2007)과 임상현장을 직면한 의과대학생에게 대응전략의 필요성(Williams, Wilson, & Olsen, 2005)을 지적하여 죽음과 임종에 관한 이론뿐 아니라 실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간호학에서는 이미 임종과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교육과정 개발과 죽음교육의 도전적인 영역에 관한 연구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로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화된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역할에 관해 검토한 연구(Kingma, 1994)와, 간호교육과정에서 임종환자와 가족의 간호를 통합시키는데 교수들을 도와주기 위한 훈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서 학생들에게 임종간호를 유능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간호교육자를 준비시키는 반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죽음에 관한 태도와 요인을 밝혀 교육과정개발로 연결시킨 연구(Matzo, Sherman, Lo, Egan, Grant, & Rhome, 2003)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간호사와 학생들에게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그 효과를 파악하여 불안감 저하와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 등을 보인 연구(Mallory, 2003)가 있다. 국내에서는 Jo, Doorenbos와 An (2009)이 RN-BSN 과정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한 결과 임종돌봄 수행 능력의 향상을 보고하였고, Yoon (2009)이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에게 실시한 후 죽음불안 감소와 삶의 의미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어 죽음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국내, 외 임종 돌봄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현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임종돌봄 교육의 필요성과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보이나, 임종돌봄 실습에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의 효율적 교육환경과 한국 문화에 적합한 간호학, 의학 전공분야 대학생들을 위한 통합적, 학제간 임종 돌봄 교육과정 및 임종실습 교육내용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임상 현장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임종돌봄 실습 과정에서 경험한 간호학, 의학 전공분야 대학생의 죽음에 관한 느낌과 관련 정서의 본질을 파악하여 임종돌봄 실습 교과목 구성과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학생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직면과 반성, 그리고 인식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고, 죽음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극복하여 임종돌봄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학습자들은 임상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임종 돌봄의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종돌봄 실습에서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이 경험한 죽음의 정서는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통해, 임종돌봄 실습에 참여했던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정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3. 용어정의

1) 임종돌봄 실습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이 각 학문영역의 교육과정에서 정해진 일정의 시간을 임상실습 현장에서 말기 환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해 돌봄을 제공하거나 임종 돌봄과 관련된 상황에 참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간호대학생은 호스피스팀 간호사의 투약과 시술을 관찰하고 안위간호에 참여하였으며, 의과대학생은 원목봉사자와 함께 도서제공과 기도봉사, 장례예식에 참여하고, 호스피스 대상자와 그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실습시간과 실습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말기 임종상황에서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에 노출된 사실을 공통점으로 인정하여 임종돌봄 실습으로 정의하였다.

2) 죽음 정서

죽음에 대해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이 각 학문영역의 교육과정에서 정해진 일정 시간의 임상실습을 통한 경험으로 학생들의 내면에서 연상되는 죽음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 또는 분위기를 말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죽음과 관련된 정서 표현 집단회에서 이루어진 학생들과의 그룹면담과 개인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Downe-Wamboldt (1992)의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임종돌봄 실습과정을 이수한 일 지역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 중,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학생 12명으로서, 죽음과 관련된 정서 표현 집단회에 참가한 참여자들이다. 참여자의 분포는 전공영역별로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 각각 6명씩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3세로서 21세에서 27세까지였으며, 학부생 7명, 학사편입생 2명, 일반편입생 3명이었다. 이들은 남학생 4명, 여학생 8명이며, 종교는 가톨릭 5명, 개신교 4명, 불교 2명, 없음 1명이었고 참여자 전원이 미혼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4학년 '임종간호실습' 과목에서 48시간을 내과 병동에서, 의과대학생은 예과 2학년의 '참 삶의 길' 과목에서 16시간을 호스피스, 원목실, 장례식장에서의 임종돌봄 실습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말기 임종대상자와 그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임종돌봄 실습에 참여하였다.

2.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일 대학교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악행금지의 원칙에 따라 참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면담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연구결과가 출판되는 점,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 받고, 연구참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은 모두 필사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정체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컴퓨터 파일에는 연구자 고유의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참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삭제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참여자와의 그룹면담과 개인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각 전공분야의 실습교육이 끝난 후 본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동의한 12명의 학생들에게 개인 면담과 4명씩 9회에 걸친 소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소그룹 구성의 기준은 그룹면담 참여에 동의한 순서로 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배분하였다. 1차 소그룹 면담을 3주에 걸쳐 각각 3회 시작하고 2차와 3차면담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각각 3회씩 총 9회 실시하였다. 소그룹면담은 주제에 따라 1차면담은 임종돌봄 실습에서의 전반적인 느낌에 관한 것이고, 2차면담에서는 죽음을 연상하는 색깔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3차면담은 죽음에 대한 참여자의 반성적 태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3차에 걸친 소그룹 면담은 총 9주간에 걸쳐 매 토요일 오전에 C대학의 학생 휴게실에서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개인 면담은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연구자와의 사전 연락으로 교내에서 이루어졌다. 개인면담은 각각의 소그룹 면담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룹면담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선정된 6명으로 그룹면담에서 드러난 내용의 확인과 의미의 명확성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개인 면담자로 선정된 6명의 학생은 그룹면담에서 자신의 프리이버시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거나 그룹면담 중 드러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개인면담은 1회씩 하였으며 소요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으며, 소그룹 면담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다. 면담은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실시하였다.

정서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이다. 정서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수단은 많지만 본 연구자는 평소에 가지고 있

는 느낌과 색을 통해 소그룹 면담을 위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을 연상하는 색깔은 어떤 것입니까?”, “삶과 죽음은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등의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 아래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개인면담에서는 “그룹면담에서 얘기하지 못한 개인적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와 같은 질문의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그룹면담의 내용을 명료화하는 작업으로 “구체적 예를 들어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개인면담에서는 참여자가 진술하는 개인적 느낌과 생각에 대하여 반영적 기법을 사용하여 죽음과 임종에 대한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현장기록 노트에 메모한 후 면담 후에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특징, 면담의 주요 내용과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소그룹 면담과 개인면담이 끝난 후 당일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그대로 필사한 노트와 개인면담과 소그룹 면담 중에 연구자가 작성한 현장노트, 그리고 소그룹 면담 후에 작성한 디브리핑 노트 등으로서 모두 A4용지 약 96페이지 분량이었다.

4. 자료분석

참여자의 면담 자료는 전통적인 질적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개념들과 절차는 Graneheim과 Lundman (2004)에 의해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통적인 내용분석은 필사본에 기록된 낱말들이 분석의 기초로 사용되며 분석의 목적은 원 자료에 깔려있는 의미를 찾아내는데 있다(Downe-Wamboldt, 1992). 자료분석은 ‘면담질문에 따라 죽음이라는 단어의 느낌’, ‘죽음이 주는 색깔’, 그리고 ‘삶과 죽음의 관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참여자의 면담을 필사한 자료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경험에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하면서 읽고 또 읽었다.
- 필사본은 죽음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는 내용 영역에 상응하는 의미 단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읽었다(예를 들면, 슬프다, 회색이다).
- 의미 단위들은(단어, 문장, 혹은 구) 추출하여 명백한

내용을 기술하고 코드화 하였다.

- 도출된 코드들은 수형도(樹形圖, tree diagram)에 따라 ‘죽음’과 관련된 각 의미단위를 범주로 분류하였다.
- 범주들은 분류 과정 동안 범주들 간의 관계를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비교되었다.
- 범주들로부터 분류된 주제들을 보다 추상적으로 압축하였다.
- 코드들, 범주들, 그리고 주제들은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과 질적 연구에 경험이 많은 동료 간호학, 사회복지학 교수들이 함께 토의하였다.
- 분석과정을 통해 나온 주제가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면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Morse와 Field (1995)의 질적 연구 감사기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그룹면담과 개인면담이 종료된 후, 면담내용을 요약하여 참여자들로부터 면담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 받았고, 각 면담 시 참여자들의 진술과 표정, 태도 등을 관찰하고 메모를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연구의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연구참여자와 질적 연구 전문가에게 보여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의 경험에서 드러난 죽음의 의미를 ‘죽음이라는 단어의 느낌’, ‘죽음이 주는 색깔’, 그리고 ‘삶과 죽음의 관계’ 세 영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죽음관련 정서 표현의 특성을 나타내는 3개의 주제와 16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표현한 죽음 정서의 특성은 ‘불확실한 죽음의 실체’, ‘떠나 가야함’, ‘죽음을 새롭게 인식함’의 3가지 주제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죽음 관련 정서의 특성과 자기성찰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정서의 범주는 ‘편안함’, ‘두려움’, ‘알 수 없음’, ‘막막함’, ‘함께 있음’, ‘사라짐’, ‘새로운 시작’, ‘되돌아감’, ‘혼자 가는 곳’, ‘만나는 곳’, ‘변화함’, ‘허무함’, ‘같은 지점’, ‘다른 지점’, ‘연결선’, 그리고 ‘분기점’의 16개로 분류되었다. 그룹면담을 통해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죽음 정서의 의미는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하여 삶과 죽음

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며 죽음을 수용하는 긍정적 자세를 보인 반면, 의과대학생은 장례예식이나 절차의 관찰을 통해 삶과 죽음을 시작과 끝이라는 대립적인 구도로 인식하며 죽음을 회피하려는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였다.

1. 제1주제: 불확실한 죽음의 실체

제 1주제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첫 번째 주제인 ‘불확실한 죽음의 실체’는 죽음 정서의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당황과 놀람을 반영하는 정서가 두드러지게 내포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죽어야 하는 허약한 인간성을 지닌 자아를 대면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죽음이라는 낱말 안에 미처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움과 경험해 보지 못하는 막연함으로 인한 낯설음과 불확실함의 무거운 정서를 표출한 반면,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고 싶은 열망과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에 대한 수용감을 표현하였다.

1) 간호대학생의 죽음정서 경험

(1) 편안함

이 세상의 삶은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한 전쟁터지요. 입시전쟁, 취업전쟁, 사실 사는 것 자체는 소유의 반복이고, 그래서 속세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므로 편안할 것 같아요. 고통 받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편안함을 찾아 안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

거든요. (참여자 2)

(2) 알 수 없음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기에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에겐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아서... 죽어보지 않고선 아무도 죽음의 실체는 모르죠. 단지 예측할 뿐이지... (참여자 9)

(3) 함께 있음

만남은 인연이라고 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한 가운데 존재하면서 더 친숙한 느낌을 갖게 됐어요. (참여자 3)

2) 의과대학생의 죽음정서 경험

(1) 두려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미련이 남을 듯하여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죽음은 모든 것을 무(無)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노력도, 내 몸도, 내 생각도... (참여자 4)

(2) 막막함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막연하고, 담담한 심정이에요. 이유는 내가 감정을 가진 인간이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배운 때문에 ... (참여자 12)

(3) 사라짐

이제 내 곁에 없다고 깨닫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울해요. 서글퍼져서 눈물이 나고 그랬거든요. 평소에 잘 해 주지 못한

Table 1. Theme,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derived from the Interviews Describing the Content Area 'Feeling from the Word of Death'

Theme 1	Reality of uncertain death					
	Nursing	Medicine	Nursing	Medicine	Nursing	Medicine
Categories	Being well	Fear	Do not know	Boundless	Being with	Out of sight
Subcategories	Comfortable leaving	Desperate for nothing to control of	Death comes to everybody	Acceptance of human fatality	Closeness with the past	Sorrow for not seeing loved ones
	Beautiful life ending	Fear for not preparedness	Unclear aspects and conditions of oneself and life after death			Regret having done to family
	Joyous occasion for a new life					Miserable leaving for the rests

것이 죄스럽고 후회스러웠어요. 살아 있을 때 잘 해야지... 잘 해 주고 싶어도 이제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참여자 6)

죽음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대체로 복합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떠올리면서 참여자들은 각자의 상황이나 믿음에 따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죽음을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라고 생각하여 편안함을 느끼는 반면, 의과대학생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싫은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존재론적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 정서를 표출하였다. 젊은 대학생으로서 죽음은 자신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특히 죽음 이후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인간의 근본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참여자들의 죽음 경험은 대체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죽음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어떤 심리적 손상을 주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표출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정서로 기억되는 것은 슬픔, 후회, 안타까움 등이다. 가까운 이의 죽음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색깔의 슬픔이나 결핍감을 안겨주지만 또한 정서적, 실제적 손상으로부터의 학습은 함께 있다는 느낌을 통해 참여자의 삶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2. 제2주제: 떠나 가야함

제2주제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두 번째 주제인 ‘떠나 가야함’은 참여자의 죽음 경험이 어떤 색깔로 연상되는가에 대한 정서표현으로 이루어졌다. ‘색(色)’은 은유적으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심리적 상태를 색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색이 형태 다음으로 대상의 상태를 말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이며, 또한 색이 명도, 채도와 같은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Lim, 2005).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면서 연관되는 색깔 그 자체뿐 아니라 동시에 색깔로부터 연상되는 또 다른 생각을 떠올린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경험은 색깔을 통해 정서적 언어로 표출된다. 참여자가 드러낸 죽음 정서의 대표적인 색깔은 흰색이었으며 시·공간적으로 죽음을 설명하였다. 그 이외에도 검정, 회색, 파랑, 초록, 주황, 무지개색 등으로 나타났다.

1) 간호대학생의 죽음정서 경험

(1) 새로운 시작

인간에게는 다양한 삶이 있듯이 죽음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느낌은 다양할 것이므로 어둠이 가고 여명이 밝으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뜻에서 흰색 도화지를 연상하게 되었어요. 죽음 뒤에는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 같고, 성스러운 것 같아서요. (참여자 7)

세상의 시간이 끝나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초록색은 원래 생명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참여자 5)

Table 2. Theme,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derived from the Interviews Describing the Content Area 'Color Association of Death'

Theme 2	Have to leave					
	Nursing	Medicine	Nursing	Medicine	Nursing	Medicine
Categories	New start	Go back to	Place going by itself	Place to meet with	Being transformed	A sense of futility
Subcategories	New start (white) Daybreak (white)	The end (white) Go back (green) Twilight (white)	Heaven (white) Empty (white) Be closed (gray) Dreamy (gray)	Bridge (rainbow)	Maple tree (orange) Dove (light blue)	Shadow (black) Funeral (black) Ghost (blue) Fog (gray) Nature (green)

(2) 혼자 가는 곳

국화꽃이 흰색이고, 아무도 없는 곳, 혼자 가야하는 곳, 하늘로 올라가서 깨끗해질 것 같은 느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텅 빈 공간에 홀로 선 느낌이랄까.... 삶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두고 가야하기에 가장 원초적이고 꾸밈없는 색을 선택했어요. (참여자 1)

(3) 변화함

인간은 성장하고 변화하여 마지막으로 자아가 완성되지 않아요. 단풍나무는 연두색에서 초록색, 주황색, 노랑색으로 변하고, 떨어져 썩고, 또 다시 썩을 틈이 꼭 같아요. 변화와 자기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 죽음도 그런거 같아요. (참여자 5)

죽음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두렵고 무서운데, 정작 죽은 후의 상태는 은은한 색깔인 파스텔 톤이라고 해야 하나? 고통도 없고, 수고한 뒤에 찾아오는 편안한 안식으로 보여요. 비둘기가 평화롭게 날아가듯이.... (참여자 9)

2) 의과대학생의 죽음정서 경험

(1) 되돌아감

종교에서는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과 신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연상되어 흰색은 순수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여자 10)

(2) 만나는 곳

인간은 죽을 때 하느님과 만나는 곳이 무지개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들었는데... 무지개는 하느님의 약속과 인간의 열망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참여자 11)

(3) 허무함

상복이나 조문 시의 검은 복장이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의 익숙한 풍경이고, 죽음은 안개색을 연상하게 되는데... 안개 낀 날은 불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참여자 6)

죽음은 무시무시한 귀신 분장을 할 때 파랑색 도깨비불을 연상하게 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보면 초록색이 떠올라요. (참여자 8)

죽음을 연상하는 색깔에서 드러난 참여자들의 첫 번째 정서는 죽음이 시간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은 생명체의 탄생→성장→종말이라는 일직선상의 구도로 죽음을 인식하면서도 죽음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였다. 의과대학생 역시 죽음은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본래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죽음은 무한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사건이 아니라 참여자 개인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의 끝을 고하는 새로운 시간으로 체험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죽음의 시간성을 의미하는 색깔로 흰색을 선택하였고, 죽음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시작하는 의미로 초록색을 연상하였다. 흰색은 새벽녘의 여명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과 생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했다.

죽음을 연상하는 색깔에서 드러난 참여자들의 두 번째 정서는 죽음의 공간성으로 표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죽음 경험이란 개별적 사건을 통하여 시간의 한계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공간화 된 죽음 개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인간의 모든 삶을 체계화 하는 논리에서 일탈시키는 참여자들의 죽음 체험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공간의 개념 안에 시간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는 참여자가 느끼고 인식하는 죽음 개념은 그들 각자의 내면적 의식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며, 시간과 공간성의 범위를 구분하여 경험하기가 어려움을 드러내었다. 죽음의 정서는 임종의 순간이라는 시간 개념 안에서 총체적으로 경험되는 공간적 관계의 통합으로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이 죽음의 공간성을 의미하는 색깔은 하늘과 텅 빈 공간적 느낌을 의미하는 흰색, 닫힌 세상과 꿈속의 세상을 연상하는 회색, 그리고 만남의 장소인 무지개다리를 연상하는 무지개 색을 선택하였다.

죽음을 연상하는 색깔에서 드러난 참여자들의 세 번째 정서는 변화와 허무함을 나타내는 이미지성으로 표출되었다. 색깔이 주는 이미지는 참여자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인 동시에 그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죽음과의 대면을 형상화 한 것으로 보인다. 죽음을 떠올리는 색깔을 오렌지색으로 진술한 간호대학생들은 단풍나무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삶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반복되는 색깔의 변화를 통해 죽음이라는 이미지와 연관 시켰다. 또 다른 참여자는 죽음의 색깔을 파스텔 톤으로 떠올리면서 죽음 뒤의 편안함과 사람들에게 여운을 주는 은은한 느낌을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의 형상으로 이미지화 하였다. 한편 의과대학생들은 장례식장에서의 상복과 조문하는 사람의 복장이 죽음을 상징 한다고 진술하였다. 파랑색은 무서운 도깨비 불과 귀신을 연상하게 되고, 회색은 죽음의 실체를 알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불투명한 안개로 형상화 하게 되고, 초록은 자연을 떠올리면서 인간의 무상함, 허무를 형상화 하였다.

3. 제3주제: 죽음을 새롭게 인식함

제 3주제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세 번째 주제인 ‘죽음을 새롭게 인식함’은 참여자가 임종돌봄 실습 후에 경험한 삶과 죽음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정서표현으로 이루어졌다. 주제에서 드러나듯이 참여자들이 경험한 죽음의 정서는 서로 상반되거나 일치점을 드러내며, 죽음 정서를 통한 학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들의 대표적인 학습경험으로는 죽음 사실을 수용하는 것, 현재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 등으로 표출되었다. 참여자들의 죽음 정서 체험은 하나의 상반된 개념으로 표현된 지점(a point)으로 표현되거나, 삶과 죽음을 분리되지 않은 연속선으로 보는 한편, 현실적 삶에서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하는 시점에서까지 선택의 기로에 선 정서를 진술하였다.

1) 간호대학생의 죽음정서 경험

(1) 같은 지점

삶은 모든 강물이 모인 바닷물이고, 죽음은 그 바닷물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져도 바다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삶은 빗방울을 포용하고 강물과 바닷물로 어우러져 생동하고 움직이지만, 빗방울은 떨어지는 순간 없어지는 거죠. (참여자 7)

(2) 연결선

삶은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은 삶 뒤에서 완성되는 거라고 봐요. 삶이 400미터 트랙이라면 죽음은 그 결승선인 셈이죠. (참여자 3)

삶은 육신 속의 정신이고, 죽음은 육체로부터의 자유로운 정신이라 생각해요.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은 결국 남는 거 같아요. 이 둘은 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3) 분기점

길을 가다보면 수없이 많은 분기점에 서게 되거든요. 어디로 가는 게 빠르고 경치가 좋을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삶과 죽음도 이런 선택의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순간순간 내가 선택한 길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 하루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살자고 다짐했어요. (참여자 12)

2) 의과대학생의 죽음정서 경험

(1) 다른 지점

삶은 시작이고 죽음은 삶의 끝에 있는 그 무엇일 뿐, 삶과는 별 관련이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으니까... 삶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움직임이잖아요. 삶은 꽃이 피는 것이고 죽음은 꽃이 지는 것처럼... (참여자 8)

삶은 태양, 죽음은 달, 태양이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태양이 뜨니까 삶과 죽음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봐요. (참여자 11)

Table 3. Theme,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derived from the Interviews Describing the Content Area 'Relation between Life and Death'

Theme 3	New perception about death					
	Nursing	Medicine	Nursing	Medicine	Nursing	Medicine
Categories	The same point	A different point	Continuous line		A crossroad	
Subcategories	Life is something to live	Death is something to be given	Life and death are one		Life and death are a chance to choose	
	Life is a beginning	Death is an end	Life and death are a companion		Death is a turning point	
		Life and death are in contrast with	Life and death are parallel			
			Life after death is equal to death after life			
			Life is a process			

논 의

죽음과 삶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참여자들의 첫 번째 정서는 삶은 밝고 활동적인 정서가 포함된 반면, 죽음은 무겁고 수동적인 느낌을 주는 개념으로 표출되어 서로 혼합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대조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의과대학생은 삶을 화려한 꽃이나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활력을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것이며, 물과 기쁨이 섞일 수 없듯이 삶과 죽음도 그와 같다고 보는 정서를 표출하였다. 한편 죽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죽음은 끝이다. 이들은 철저히 구분된다고 보았으며, 삶은 대체로 활기에 차고 역동적인 정서로 표현된 반면, 죽음은 차나적이고 단절된 느낌과 연관되어 일상의 죽음경험을 삶에 접목하지 않는 한 끝까지 분리되는 한 지점으로 표출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죽음은 바닷물에 떨어지는 물방울의 한 점과 같이 고정적이며 자율성을 상실한 것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바닷물이 빗방울을 포용하듯이 삶과 죽음을 포괄적으로 인식하였다.

죽음과 삶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간호대학생의 두 번째 정서는 뻔 레야 뻔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로 삶의 시작과 끝인 죽음을 하나의 연결된 선(line)으로 인식하였다. 삶은 시작해서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죽음은 끝에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므로 결국 이 둘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관점을 드러내는 단어들은 하나, 동반자, 평행선, 과정 등이다. 참여자들이 임종돌봄 실습 후에 경험한 삶과 죽음의 견해는 통합적이고, 이전보다 성숙되고 수용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삶이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 항로에서 겪는 고통인 동시에 죽음과의 대화과정으로 진술하였다.

삶과 죽음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간호대학생의 세 번째 정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과 망설임을 표출하는 정서를 엿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삶과 죽음을 하나의 큰 대양으로 보면서 먼 바다를 지나 강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을 떠올린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걸 일상의 체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 죽음을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관점을 드러내는 단어들은 분기점, 선택, 전환점, 여행 등으로 표현되었다. 참여자들은 죽음이 그 자체로서 규정될 수 있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를 보여준다. 따라서 삶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갈림길이며, 그 길은 참여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하는가라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열두 명의 간호대,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종돌봄 실습을 통한 죽음 경험을 얻기 위해 개인과 그룹으로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질적 내용분석 하여 3개의 주제와 16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죽음에 대한 정서는 불확실한 죽음의 실체를 의식하고, 언젠가는 현세를 떠나 가야하며, 죽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점진적인 정서적 안정 상태로 나아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제와 각 범주에 따라 단계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의 느낌’, ‘죽음이 주는 색깔’, 그리고 ‘삶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불확실한 죽음의 실체’의 정서표현은 Jo 등(2006)과 Lee, Jo와 Lee (2005)가 제시하듯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의 삶과 죽음에 관한 지식과 체험 부족, 삶의 집착과 자기성취에 비중을 두며, 죽음이라는 문제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일치해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죽음의 불가피성에 직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거부적인 정서를 표출하였다. 이는 성인초기의 발달단계에 있는 젊은 학생으로서의 개인적, 사회심리적 특성이 큰 비중을 차지 한 것으로 보여 기존의 연구(Lee et al., 2008)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젊은 대학생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부분으로 볼 때 죽음을 어떻게 수용하며 다루어야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죽음과 항상 접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의 전문직 종사자가 될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들로서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

참여자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거나 발음하면서 갖는 공통적 정서로서 죽음의 보편성과 필연성, 사후세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같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일반적 공리를 표명하였으나, 의과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정서는 두려움, 막막함, 사라짐 등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에 비해 죽음의 부정적인 면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참여자들의 교육과정 차이로 인한 임종돌봄 실습 내용과 실습기간 그리고 학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o 등(2005)의 연구에서도 언젠가는 마주쳐야만 하는 죽음의 불가항력적 사실을 싫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으나 결국 대학생들이 죽음을 현실적 가능성으로 절실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억압하고 기피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한편 Inumiya (2005)

는 죽음의 긍정적 의미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집대성,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한 반면, 부정적 측면은 인생의 좌절, 가족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 죽는 이의 사회적 영향이나 흔적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이루고 있다.

참여자들의 또 다른 정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타자의 죽음을 통한 남은 자로서의 슬픔, 후회, 미안함인데, 이는 상실과 사별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슬픔이 참여자 자신에게 전달되어 그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과 영향이 있더라도 그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재구성이 일어난 경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상실의 충격을 덜고 적응적인 삶을 회복하기가 쉬워졌다(Armour, 2003; Gamino & Sewell, 2004). 이처럼 돌봄을 제공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이된 상실로 인한 우울과 슬픔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인 삶에서 애착을 건강하게 맺어나가기 어렵게 된다(Skovholt, 2001). 또한 죽음 현장에서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임종의 고통을 공감하고, 치료적 돌봄을 수행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죽음은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들에게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며, 사별 경험의 영향과 회복 및 극복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색깔로 연상되는 죽음정서는 ‘떠나 가야함’이 주제로 드러났으며, 이 주제에서 시간, 공간, 그리고 이미지 지향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여기서 참여자들의 죽음에 관한 현상 인식은 삶이 지니고 있던 고유한 특성이 사라져 버림과 동시에 기존의 삶에 의해 구성되었던 시공간과는 다른 시공간이 전개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죽음을 새로운 시각과 변화의 시점으로, 의과대학생은 인간 본성으로의 귀환과 새로운 만남으로 인식하여 참여자들이 연상한 죽음 현상을 ‘떠나 가야함’으로 본 것은 일종의 가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시각으로 감지할 수 있었던 세계는 잠시 시선에서 보류되고, 거리감마저 상실됨에 따라 실재하는 현실적 시공간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색깔은 연상을 수반하며, 그 연상이 지역사회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전통과 결부되어 사회적 관습을 이룬다(Park, 2000). 한국에서는 오색이 생활화되어 문화를 이루며 불교의 사찰과 같은 한국의 문화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또한 일상의 생활에서 보면 양(陽)의 기운을 가진 것으

로 보는 홀수를 선호하기 때문인지 한국의 전통적인 색깔의 수는 흔히 삼색(빨강, 노랑, 파랑), 오색(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무지개색인 칠색(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으로 구분된다(Park, 2000). 본 연구에서 드러난 참여자의 죽음 연상 색깔은 주로 흰색이 많았으며, 오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흰색은 고결한 아름다움이 내면에 서려있는 고상하면서도 밝음을 상징한다(Lim, 2005). 참여자들은 흰색을 새로운 출발과 여명이 밝음, 그리고 시간의 끝으로 연상하여 죽음을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한 반면, 하늘나라, 텅-빈과 같은 공간적 개념과 동일시하였다. 결국 죽음을 통해 모든 사물에서의 익숙함이 제거되는 아쉬움을 내포한 반면, 현세적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되었다.

의·간호계 종사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Kim, Na, Kwon, Kim, & Min, 1983)에서 죽음 인지도가 높은 죽음연상 단어로 묘, 장례의식, 어두움, 질병 등으로 나타나 죽음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낸 점은 본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죽음을 연상한 색깔과 이미지로는 검정은 장례식과 그림자를 나타내며, 회색은 안개를, 파랑색은 귀신을 연상한 반면, 주황색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단풍나무로, 파스텔 색깔은 고통과 두려움을 넘어선 평화로, 초록색은 자연의 이미지를 연상하여 죽음에 대해 비교적 밝고 긍정적 측면을 함께 보여 주었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무한한 시간을 상상하며, 현실 세계로부터 초월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인간의 정서는 수동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어떤 대상에 대한 신념과 정서 간의 관계가 분명히 인식될 때 인간의 정서는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도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정서가 다양하게 표출되었지만 죽음이란 삶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으며 죽음이 있으므로 삶이 보다 진해진다고도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삶과 죽음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보다는 포용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들은 삶과 죽음을 같은 지점(point), 연결된 선(line), 분기점(crossroad)으로 표명했는데 이는 죽음이 단순히 삶의 종말이나 끝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한 가운데 존재하면서 일상생활을 통해 인간존재에 깊이 파고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한편 의과대학생들이 삶을 꽃, 태양과 같이 따뜻하고 살아가는 어떤 것으로 진술한 반면, 죽음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떤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별로 달갑지 않

은 분위기로 드러낸 데는 개인 내적 요인에서부터 사회,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삶은 참여자들의 미래와 희망을, 죽음은 학업, 진로문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in (200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자살생각 위험 요인으로 학업, 진로문제, 무망감, 그리고 관계문제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즉 성공에 대한 가족과 자기부과 압력, 지각된 경쟁력, 사회적 요구와 학문적 요구 사이의 불균형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Baumeister (1990)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인과과정으로 보았는데, 최근 한국의 대학생들은 청년 실업률의 증가로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한편 Lee와 Chun (2007)은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으로 자기수용과 정체성을 지적했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발달 단계상 정체감 확립의 과제가 중요하며, 삶에 대한 긍정성과 의미 찾기는 대학생의 삶과 죽음의 태도를 진단하는 중요한 단서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참여자들이 삶과 죽음을 연결된 선(line)으로 인식 한데는 시공간 상의 떨어질 수 없는 개념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발전된 인식과정으로, Kim (2005)은 시공간의 관계를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작용하며 끊임없이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적 존재로 인식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5)의 연구에서도 삶과 죽음이 뗄 수 없는 하나의 명제로 발견된 점과 일치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진술한 동반자, 평행선, 과정 등의 개념은 삶과 죽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계속 되어가는 생성의 존재로서, 삶을 위해서 죽음은 필연적이며 죽음을 통해서만이 삶이 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삶과 죽음의 관련성을 분기점이나 갈림길로 진술한데는 참여자들의 발달과제와 관련된 바람직한 삶의 요인들 간에 일관성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된다. 즉 한 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듯이, 일회적인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에 대해 숙고하는 자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참여자의 관점은 참여자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즉 일부 참여자는 죽음이 삶의 완성이므로 단 하루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살자고 다짐하거나, 죽음이 전적으로 참여자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연구에서 드러난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들의

죽음 의미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으며, 죽음이 삶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내면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추구하고 있다. 웰다잉의 의미는 잘 죽는 것인데, 잘 죽기 위해서는 올바른 죽음 이해와 실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죽음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어 창조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죽음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비잉의 의미는 인간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웰다잉을 통해 그 품격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품위 있는 죽음과 관련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한국의 일 지역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들이 임종돌봄 실습을 통해 보여준 죽음연상 정서표현을 그들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맨 처음 죽음이란 단어를 되새기며 ‘불확실한 죽음의 실체’에 대한 느낌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정서를 보인 데는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즉 죽음을 밝고 긍정적 정서로 인식한 반면, 어둡고 부정적인 정서로 표출하였으며 남은 자의 슬픔, 후회, 연민의 정서도 함께 드러내었다.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정서와 죽은 자를 떠나보내며 살아남는 자로서의 준비되지 않은 불안정한 심리적 반응을 표현하였다. 죽음을 연상하면서 떠오르는 색깔에 따른 정서 표현의 주제는 ‘떠나 가야함’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죽음을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포함한 이중적 개념으로 인식하였으며 한국의 오색을 중심으로 흰색과 검정이 주를 이루었다. 이 중에도 흰색이 죽음의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대표하는 독특한 색깔로 드러났으며, 이 외에도 무지개 색깔, 파스텔 톤, 회색 등 참여자의 죽음연상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색깔로 연상되는 죽음의 이미지로는 단풍나무, 비둘기, 그림자, 장례, 귀신, 안개, 자연으로 드러나 긍정과 부정의 정서를 동시에 표명하였다. 삶과 죽음의 관련성에서는 삶과 죽음을 지점(point), 연결된 선(line), 분기점(crossroad)의 정서 과정을 표명하여 참여자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내재화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들은 죽음에 관한 정서표현을 통해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죽음의 실체에 대한 불확실함과 충격에서 점진적으로 안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삶과 죽음을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인 정서로부터 하나이며 연결된, 그리고 선택의 기회이며 분기점으로 표현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현상을 폭넓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과 함께 학생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였고, 그럼으로써 인생을 보다 진지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타인의 삶 또한 값지게 여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죽음을 연상하는 정서 표현은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으로 하여금 삶의 진지성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들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종돌봄 실습을 마친 후 죽음연상 정서표현을 바탕으로 오늘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죽음의 의미와 관점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을 위한 보다 나은 임종돌봄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간호학, 의학 전공분야의 임종돌봄 실습 교수 학습과정에서 본 연구의 절차와 유사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rmour, M. (2003). Meaning making in the aftermath of homicide. *Death Studies, 27*, 519-540.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 Downe-Wamboldt, B. (1992). Content analysis: Method, application, and issu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3*(3), 313-321.
- Gamino, L. A., & Sewell, K. W. (2004). Meaning constructs as predictors of bereavement adjustment: A report from the scott and white grief study. *Death Studies, 28*, 397-421.
- Graneheim, U. H., & Lundman, B. (2004).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Nurse Education Today, 24*, 105-112.
- Inumiya, Y. (2005). A study on relationship of bioethics and views of life and death in adolescence. *Kor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1), 85-108.
- Jo, K. H., Doorenbos, A. Z., & An, G. J. (2009). Effect of an end-of-life care education program among Korean nurses.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Nursing, 11*(4), 230-238.
- Jo, K. H., & Lee, H. J. (2008).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depression, level of satisfaction and death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2), 74-83.
- Jo, K. H., Lee, H. J., & Lee, Y. J. (2005). Types of students' death attitudes majoring in human service area: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5), 829-841.
- Jo, K. H., Lee, H. J., & Lee, Y. J. (2006).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instrument for subjects related to dea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1), 74-83.
- Jo, K. H., Lee, H. J., & Lee, Y. J. (2007).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online education on dea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4), 442-452.
- Kim, C. J., Lee, W. H., Kim, S. S., Yoo, H. R., Han, S. H., Kim, G. Y., et al. (1997). The effect on the preceptorship on clinical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Nursing, 36*(4), 100-109.
- Kim, H. D. (2005). A study on time and space in "a study of death" of Park. *Sang-Iyung. Critical Literature, 21*, 189-216.
- Kim, Y. K., Jo, K. H., & Kim, Y. K. (2005). The meaning of death seen by nursing students through art work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7*(4), 602-611.
- Kingma, R. (1994). Revising death education. *Nurse Educator, 19*(5), 15-15.
- Lee, H. J., Jo, K. H., Chee, K. H., & Lee, Y. J. (2008). The perception of good death among human service students in South Korea: A Q-methodological approach. *Death Studies, 32*(9), 229-237.
- Lee, K. H., Kim, H. S., Na, C., Kwon, H. J., Kim, S. H., & Min, B. K. (1983). A study on the death awareness among health care personnels. *Journal of RIMSK, 15*(3), 174-186.
- Lee, S. A., & Chun, B. K. (2007). The influence of physical self-description to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niversity's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16*(4), 341-350.
- Lee, Y. J., Jo, K. H., & Lee, H. J. (2005). Effects of significant other's death on high-touch major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3*(1), 113-124.
- Lim, H. W. (2005). The metaphorical extension of light and color in Korean. *Discourse and Cognition, 12*(3), 101-119.
- Mallory, J. L. (2003). The impact of a palliative care educational component on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9*(5), 305-312.
- Matzo, M. L., Sherman, D. W., Lo, K., Egan, K. A., Grant, M., & Rhome, A. (2003). Strategies for teaching loss, grief, and bereavement. *Nurse Educator, 28*(2), 71-76.
- Morse, J. M., & Field, P. 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London: Chapman & Hall.
- Min, Y. K. (2005). Evaluation on suicidal risk factors and suicidal though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31*, 31-52.

- Park, I. J. (2000). Color symbolism in Korean culture. *Papers of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 183-204.
- Rabow, M., Gargani, J., & Cooke, M. (2007). Do I say: Curricular discordance in medical school end-of-life care education.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10(3), 759-769.
- Skovholt, T. M.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New York: Allyn and Bacon.
- von Gunten, C. F. (1996). *Why I do what do*. In L. Blank (Ed.), *Caring for the dying: Identification and promotion of physician competency-educational resource and personal narratives*. Philadelphia: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 Williams, C. M., Wilson, C. C., & Olsen, C. H. (2005). Dying, death, and medical education: Student voices.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8(2), 372-381.
- Yoon, M. O. (2009). Effect of a death preparing education program on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life in volunteer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2(4), 199-208.